

공동체 소식



대림 제2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올리안나 가정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81	211	154	92

자비의 특별 희년(An Extraordinary Jubilee Year of Mercy) 선포

- 기간: Dec.8, 2015 - Nov.20, 2016
- 내용: 캔사스 대교구 홈페이지 참조 (www.archkck.org/mercy)
- 자비의 2차헌금 봉헌: 오늘(12/6) 봉헌예절 시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채린 소피아	문호진 안토니오
다음주일	문예나 요안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자비의 특별 희년 기도안내

- 일시: 첫 번째 기도 - 12/13(주일) 오후2:30-3:00.  
첫기도 다음부터 -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2:30-3:00.
- 장소: the Stone Chapel.
- 성체강복예절로 이루어지는 기도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차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성탄 꽃봉헌 받습니다.

- 기간: 11/29(주일) - 12/6(주일)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한춘희, 안복선
차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성탄선물 준비 및 나눔 안내

- 선물봉헌일시 : 12/25(금) 오전 11:00 미사 봉헌예절 시
- 내용 : 신자들 각자 10불 미만의 선물과 카드를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성탄당일 현금 10불로 나눕니다.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리미야, 문석찬 요셉

구역별 판공성사 일정 및 장소

- 1구역: 12/10(목) 저녁07:00, 조마리아 덕,  
9732 Reeder St., Overland Park, 66214.
- 2구역: 12/11(금) 저녁07:00, 홍순익 덕,  
11321 W 131st St., Overland Park, 66213.
- 3구역: 12/12(토) 저녁07:00, 고영방 덕,  
8109 W 144th Ter., Overland Park, 66221.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29	74명	332불	1130불
정석원, 김창식, 김호원, 류기범, 김화년, 박동희, 임창주, 김태중 (총 8세대)			

이번 달 맨하탄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불의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림 묵상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하늘을 증언하고 주님의 길을 바르게 닦는 일입니다. 다음에 오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기를 광야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초라한 것 앞에 겸손할 수 있을 때 굳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5,1-9

<하느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1,4-6.8-11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6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쉐 마

## 깨어 있는 삶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님의 길을 마련합니다. 오늘 전례는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의 삶을 살며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지난 주 전례가 “깨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 이번 주 전례는 일어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치우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이 인용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로 표현한다면, 깊이 파인 골짜기, 앞을 가리는 산과 언덕, 바로 가기 어렵게 만드는 굽은 길, 여러 굴곡이 있는 거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1독서의 바룩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겹옷”을 걸치라고 말하고 있고, 2독서의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골짜기와 산과 언덕, 굽은 길과 거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불의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불의함이란 무엇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갈라 5,19-21에서 “음행, 추행,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일,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참으로 불의한 것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들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불의함을 없애고 주님의 길을 닦는다는 것이 매우 개인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문제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종종 말씀하시듯이, 불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의 길을 닦는 일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풀어내어야 할 것들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

을 방해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 잘못된 규정, 어그러진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이처럼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개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동체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불의를 제거하고 주님의 길을 닦는 것은 그 구성원인 우리들 자신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얽혀 있는 불의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가 그 불의를 바로잡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불의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나 혼자 회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또 기껏 회개의 마음을 먹었다손 치더라도 당장 풀어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에 쉽게 회개의 삶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길을 닦으러 나가도록 합시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너무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불의부터 제거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주변 분들도 그 삶에 동참하도록 초대합시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는 삶’이란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가 당면해 있는 문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골짜기는 조금씩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입니다. 나부터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는 일은 영원히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사도 바오로의 믿음 친구, 티토

사도 바오로는 많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그들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중에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던 여러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 한사람이 티토입니다. 티토는 그리스 사람으로 사도 바오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오로의 명령에 따라 두 번 코린토 교회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크레타섬에 전교를 갔다가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 그곳에 남았습니다. 티토는 유능하고 결단력 있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원만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왜 그를 크레타섬에 남으라고 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티토 1,1-5

티토는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전교활동에 항상 티토를 동행했지요. 신심이 두터운 티토는 사도 바오로에게 손발처럼 든든한 협조자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였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토를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자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이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교회지도자의 중요한 자질과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티토 1,6-16

티토의 가장 돋보이는 활동은 코린토 교회의 갈등을 잘 해결한 것입니다. 당시 코린토 교회는 여러 파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의 분

열을 무척 걱정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사정을 수습하기 위해 사도 바오로는 급히 코린토를 방문하였으나, 결국 이 여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를 위해 티토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티토 2,1-15

티토가 코린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티토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티토는 자신이 나서지 않고 사도 바오로의 뒤에서 도움을 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티토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믿음만한 제자였습니다. 참다운 친구이며 제자인 티토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오로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티토는 크레타섬에서 주교가 되어 여생을 보내다가 93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해는 나중에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 묵상

## 터널

터널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치지 않고  
처음 마음으로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6)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